

적중예감. 실재론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생겨나며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은 감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미적 판단이 적절하다거나 옳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미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논쟁에서 우리는 어떤 미적 판단이 옳고, 어떤 미적 판단이 그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그렇다면 (㉠)

실재론자들은 미적 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것 이 대상에 실재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미적 판단의 객관성을 지지한다. 이들에 의하면 미적 속성 p에 관한 진술인 미적 판단 J 가 객관적으로 참일 때, 미적 속성 p가 실재한다. 예컨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웅장하다’는 판단이 객관적 참이라면 ‘웅장함’이라는 미적 속성이 실재한다는 식이다. 이 경우 ‘웅장하다’는 미적 판단은 ‘웅장함’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미적 속성에 대한 기술이다. 동일한 미적 대상에 대한 감상자들 간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미적 판단 간에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옳고 그름의 여부는 실재하는 미적 속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밝힐 수 있다.

그러나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이 단순한 객관적 실재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실재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판단은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의존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웅장함’이라는 미적 속성은 ‘웅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감상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미적 판단의 주관성과 경험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미적 판단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이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불일치란 굳이 해소해야 하는 문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경험, 취미와 감수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적 속성과 미적 판단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였던 레빈슨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대상의 감상 과정에서 감상자들은 일차적으로 대상의 비미적(非美的) 속성에 주목한다. 비미적 속성이란 대상의 선, 색, 모양, 질감, 무게, 리듬, 음색 등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시 정상 지각자에 의해 관찰이나 지각이 가능한 ① 구조적 속성,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지각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는 ⑥ 하부 구조적 속성, 작품의 발생에 관계하는 주요 요소들, 즉 작품의 창작자나 작품이 속한 경향, 영향 관계 등을 일컫는 ③ 맥락적 속성으로 나뉜다.

이러한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을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이라 규정하였다.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인상의 가치 중립적 속성으로 인해, 그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술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런데 감상자들이 제한된 범위 내의 술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미적 판단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새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은 한 감상자가 이 곡으로부터 현상적 미적 인상을 지각한 후, 이 인상을 기술할 수 있는 술어로 ‘신파적이다’를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미적 판단으로 표현했다고 가정해 보자. 레빈슨에 의하면, 이 술어로 이루어진 미적 판단(‘이 곡은 신파적이다’)은 감상자 자신이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지각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감상자가 같은 곡에 대해 ‘이 곡은 우아하다’라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내린 미적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감상자들이 받은 인상이 모두 ‘고음의 현악기 위주의 연주, 느린 템포, 단조 선율의 조합이 불러 일으키는 인상’이라면, 그들의 판단은 모두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근거한 것으로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미적 판단 간의 차이는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레빈슨의 견해이다.

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효용을 밝힌 후, 다른 이론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더불어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이론을 설명한 후, 이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이론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2. ㉠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판단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미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판단의 주체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
- ③ 미적 판단의 다양성에 대한 논쟁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
- ⑤ 미적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대상의 외부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①~③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은 ① 네덜란드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직선들의 수직적 교차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직사각형들에 의해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 ②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일부는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두드러져 보인다. ③ 엄밀한 측정 결과 이들 직사각형에서 서로 평행 관계에 있는 직선들의 길이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감상자들이 대상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4. 레빈슨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거대한 화면을 단일한 색채로 가득 메운 마크 로스코의 색면 회화에 대한 미적 판단은 ‘따분하다’,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술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충위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감상자들의 입장에서 ‘야하다’라는 술어는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적절한 술어로 평가받지 못한다. ‘야하다’라는 술어는 ‘밝고 부조화스러우면서 눈길을 끄는 색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기술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① 평가에 사용된 술어들은 로스코의 작품으로부터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과 그에 대한 감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 ② 로스코의 작품을 판단하는 술어 중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들은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술어이다.
- ③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와 같은 술어를 이끌어내는 현상적 미적 인상은 작품의 색, 면과 같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해 ‘따분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판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술어의 선택과 사용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 ⑤ ‘야하다’가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술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 술어가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재한 술어이기 때문이다.